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반소정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5년 6월 9일 월요일 107호

2면 대학

꿈을 향한 동행
융합 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

새롭게 변신한 노천극장

3면 일반

학생예비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병역명문가 제도를
들어보셨을까요?

5면 사회

청년 아르바이트,
의무만큼 권리도 중요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흐르는
MZ세대의 인식

6면 특집

20년째 이어진
전통과 현대의 만남, 단오제

7면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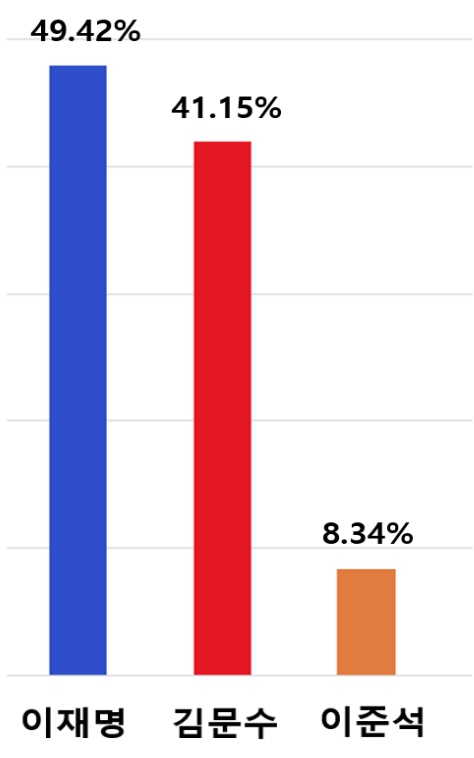
유성처럼 찬란한
너와 나의 별난 이야기
그 무엇보다 빛났던 대동제

변화를 택한 국민,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5 국민의 선택, 득표율 49.42%로 이재명 당선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개표 완료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 대통령)은 득표율 49.42%, 득표수 1,728만 7,513표를 기록했다. 3일 자정 무렵,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어 취재진과 만나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하며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주요 공약부터 강원권 공약까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은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청년 지원 확대 ▲부동산 개혁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소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소비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기본금 지급, 주거 지원 확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을 병행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부분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통해 '강한 공정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원 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수도권 수준의 교통 인프라 구축,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특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SO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접근성과 지역 경제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철옹성 같은 4050, 그리고 '준비'된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에서도 ▲세대별 투표 경향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구조사 결과, 40대와 50대 유권자층의 고른 지지가 당선의 기반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0대 유권자의 72.7%가 이 당선인을 지지했고, 김문수 후보는 22%를 기록했다. 50대 유권자 중에서도 69.8%가 이재명을 지지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26.5%를 얻었다. 반면 20대와 30대 유권자층은 성별에 따라 지지 성향이 엇갈리는 등 세대 내 분화가 뚜렷했다. 20대 남성 유권자는 이준석 후보(37.2%)와 김문수 후보(36.9%)에게 표를 분산시켰고, 20대 여성 유권자의 58.1%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승리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탄핵과 이후 보수 진영의 분열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이 당선인은 '준비된 후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를 얻었다.

우리의 내일, 우리가 결정한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 양상은 주요 관심사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유권자 투표율은 약 68.5%, 30대는 약 72.3%로 20대 대선에 비해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치적 관심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20대는 성별에 따라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며 단일한 '청년 표심' 개념이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정치 불신과 대통령의 부재에 대한 고민, 한편으로는 사회문제를 삶과 연결 짓는 태도가 함께 나타났다. SNS,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정치 정보 소비와 토론 문화 역시 청년층 정치 인식 변화의 한 축이다.

그렇다면 대학생과 청년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단순히 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 정치인의 발언을 분석하는 시선, 공공 이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 활동, 청년단체 참여, 지역 정치 기획 등 일상 속 정치 실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일이다. 청년 스스로가 무력감을 넘어 변화를 이끄는 주체임을 인식할 때,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송민선 수습기자

꿈을 향한 동행, 융합 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 전공의 벽을 허물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의 주전공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전공과 전공을 결합하거나 주전공 내 특정 직무에 맞춰 전공 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바로 여러 전공을 융합하여 공부하는 '융합 전공'과 전공을 심화 학습하는 '마이크로디그리'이다.



▲ 사진=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튜브 캡쳐

융합 전공 :
2개 이상의 전공으로 직업의 길을 넓힌다

융합 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해 만든 새로운 전공 교육과정으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여 실용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합 전공 이수 체계에서는 주전공의 최소 전공 학점을 이수한 뒤, 복수전공으로 융합 전공을 선택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융합 전공의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다전공 신청 자격은 2학기 이상 이수(또는 수료 예정)한 학생에게 주어지며, 주로 2학년 전후에 신청할 수 있다. 융합 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융합 전공 교과목을 2학년 때부터 학기당 6학점 이상씩 이수를 해야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다. 이 융합 전공에서는 유아교육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하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융합 전공을 신청 및 이수를 하는 방법은 6월 혹은 12월에 인트라넷 다전공 관리에서 다전공 신청한다. 그런 다음에는 원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 다전공 신청을 승인한 뒤, 다전공을 신청한 학과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를 한다. 학교 본부에서는 학생이 신청한 다전공 승인을 최종 승인 후, 다전공 신청자 명단을 단과대학별로 통보한다.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융합 전공을 이수하게 된다면 크게 2가지의 혜택이 있다. 첫 번째로는 융합 전공 학위를 수여받는다. 융합 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 후 각각의 미래융합학사에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단일 전공의 전공 최소 학점을 충족했더라고 융합 전공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융합 전공 졸업 학점의 50% 이상을 이수하고 교과목 평균 성적이 2.75점 이상 이수자에게 창의 융합인재 장학금을 지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 본부 교육혁신과(033-640-1606)에 문의를 한다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
특정 전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심화 과정

전공 마이크로디그리란 자신이 선택한 주전공을 바탕으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도록 집중적으로 설계된 심화 교육 과정이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의 유형으로는 전공 능력 기반형, 융합 연계형, 산업체 연계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전공 마이크로디그리의 편성 및 이수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본 편성 같은 경우 1~2개의 교과목을 편성하는 반면에, 심화 단계에서는 1~2개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융합형으로 2개 이상의 전공 교과목으로 필수 편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장 단계에서는 2개의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산업체 연계형으로 현장실습 및 산업 세미나·캡스톤디자인·진로 및 산업체 현장과 관련된 2개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수 기준으로는 총 12학점에서 15학점 이상 이수를 하며 이수 교과목 평균 성적이 B(3.0)를 넘어야 한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역시 3가지의 이수 혜택이 있다. 총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과, 성적증명서에 'OOOO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이수' 표기,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등이 있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의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육 과정을 다 듣고 인트라넷에서 이수 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면 학교 본부 교육혁신과에서 확인 후 총장님 명의로 이수증이 발급된다. 승인이 되면 인트라넷에서 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수증 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는 총 19개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관광경영학과, 자치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자연과학대학(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수학물리학부 물리·에너지전공, 수학물리학부 수학전공), 생명과학대학(해양생태환경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식품융합전공), 공과대학(전자·반도체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 세라믹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 신소재금속공학전공), 예술체육대학(체육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치과대학(치위생학과), 보건복지대학(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과학기술대학(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 본부 교육혁신과(033-640-1606)에 문의를 한다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융합 전공과 전공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본인의 전공을 다양한 전공과 융합하거나 심화하여 공부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흥미가 없거나, 진로가 불확실하다면 관심가져보는 것을 권한다.

김규완 수습기자

새롭게 변신한 노천극장

올해 우리 대학에는 낡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물들을 새로 정비하는 등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중 우리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천극장도 새롭게 변신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노천극장은 과거 우리대학 밴드 동아리였던 'Seagulls'의 연습실이었다. 지하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야외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동아리가 사라지자 현재는 교수밴드 'East Sound', 직원밴드 'Go on'이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야외 공연장은 예술체육대학의 행사와 동아리의 정기 공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 학생들은 노천극장의 존재를 대부분 모르고, 노후된 환경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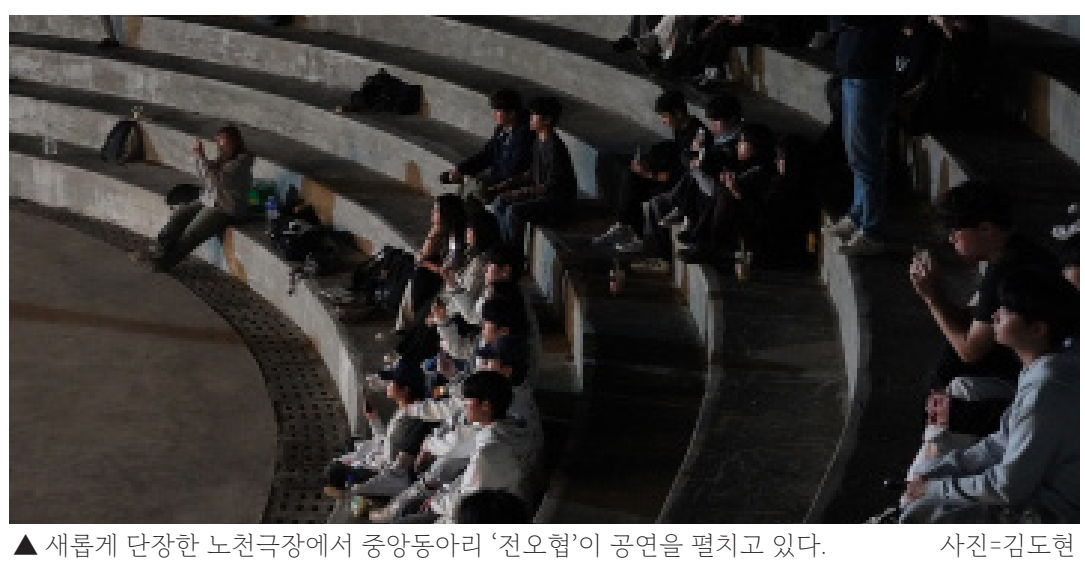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많은 학생이 노천극장을 이용할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다 학생들이 노천극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노천극장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에서 동아리와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학생복지과와 시설과, 대학본부 임직원들이 노천극장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그 결과 노천극장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다. 기존에 낡았던 외벽의 페인트와 객석의 일부 보수, 그리고 주변 조경작업으로 이전과 다른 깔끔한 인상을 남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도록 음향장비와 랜선들을 설치했다. 또한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을 정비하고 바닥에는 이동식 조명도 설치해 풍성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천극장 공사가 끝난 후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노천극장의 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우리 대학 밴드 동아리인 사운드 믹싱과 전국오뎅협회, 직원밴드 교수밴드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당일에는 공연에 관심 있는 문화 분과 동아리 대부분이 참여했다. 노천극장 시설 사용에 관한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음향과 조명 2가지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육과는 다른 방향이었고, 조명 사용법에 많은 시간을 보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음향기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교육이 끝나자 전국오뎅협회가 노천극장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정식 공연이 아닌 버스킹으로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우리 대학 학생들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우기도 하였다. '전국오뎅협회'의 회장 최태림 학우(조형예술디자인 19)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노천극장이 맘에 들고, 우리 동아리를 포함해 많은 학우가 노천극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노천극장에 대한 소감을 짤막하게 남기기도 했다.

새롭게 재단장한 노천극장,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 사용 교육이 미흡했다는 점과 학생들이 쉽게 구비 할 수 없는 드럼과 악기 앰프 등의 공용 장비가 없다는 점은 향후 노천극장을 통해 자유로운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우리 대학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이 노천극장을 많이 이용하여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새롭게 단장한 노천극장에서 중앙동아리 '전오협'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도현

김도현 기자

“학생예비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우리 대학 학생복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돋보여

학생예비군 훈련을 앞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막연함과 궁금증. 특히 훈련 일정, 장소, 이동 방법, 준비물 등 낯설기만 한 과정에서 자칫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체계적인 훈련 운영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예비군은 병역 의무를 마친 대학(원)생이 학업을 지속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제도다. 일반적인 지역 예비군과는 달리, 학교 단위로 편성되어 비교적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일정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학생예비군 역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일원으로, 매년 훈련을 통해 군 복무의 연속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우리 대학 학생예비군 훈련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초 또는 6월 초, 시험이나 축제 등 주요 학사 일정을 피해 잡는다. 올해는 대선 일정으로 인해 5월과 6월로 나뉘어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오전 8시 학교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버스는 보통 8시 40분경 훈련장에 도착하며, 9시부터는 사전 등록, 조 편성, 장비 지급이 이루어진다.

1개 조에 약 8명 내외로 구성된 학생들은 방탄헬멧, 전투복 등 장비를 착용한 후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은 5개 과목으로 나뉘어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전체 일정은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조별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인 퇴소가 이뤄진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학교 차원의 교통 지원이다.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 대부분 교통비만 지급되어 개인이 직접 훈련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예산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복지의 일환으로 매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생 예비군 사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학생예비군 훈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이 이루어지며,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50분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시간 동안 훈련장 내 PX를 운영하여, 재학생 예비
군들에게 간단한 식사나 생필품을 판매하여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 장소는 양양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다. 기존에 주로 이용하던 동해 훈련장에 비해 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정 조율이 수월하고, 보다 쾌적한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해 훈련장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사용하고 있어 훈련 일정이 겹칠 때가 많아 혼잡한 반면, 양양 훈련장은 여유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

학교 내 예비군 연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 우리 대학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 일정 및 운영에 있어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예비군 연대장은 보통 대령 전역자나 명예진급자 중에서 선발하는데, 국방부 시험을 통과한 후 대학 직원으로 임용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예비군이라 해도 군 복무를 마친 국민으로서, 현역 장병에 대한 존중과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와 예비군 연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학생들 또한 훈련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준혁 수습기자

병역명문가 제도를 들어보셨을까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이 공포·시행된 지가 75년이 지났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졌던 연평해전 등 숱한 위기와 사건을 겪어온 현대사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할아버지·아버지·형제들이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있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이하 ‘청’)은 2004년부터 1대부터 3대까지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작년부터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또는 여성 1명이라도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해서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준사관과 부사관 중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상태를 말한다. 또한, 국민방위군·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병역명문가 가계도 사진=병무청

청은 매년 병역이행자 수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 가문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이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2004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은 총 6,813 가문이며, 가문들의 모든 인원은 23,237명이다. 세간에 알려진 병역명문가 가문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 가문이다. 지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병역명문가로 표창되게 되면, 해당 가문에 대한 정보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에 있어 귀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가문을 위해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설이용료 감면 및 면제 등 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대사업은 대표적으로 CGV 등 시중 영화관을 이용 시 예매 발권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주차 시 이용 요금의 50% 감면 혜택 제공, 대학 병원(예: 강원대학교병원) 방문 시 무상 검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쳐야 하는 만큼, 선정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했던 최문순 전 지사는 2018년 자신의 병역명문가 선정 소식에 대해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모두 6.25 전쟁 시절 참전 용사가 대부분”이라며, 국가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양사업을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병역명문가 1세대는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이거나 숨진 경우가 많은데, 병역명문가의 생존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명문가에 대한 우대 규정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임의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작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우대 규정을 의무화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춘천·원주·강릉시의 보건소에서는 명문가에 대한 보건소 의료비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단, 보건소 의료비 면제 및 할인 조례는 도내 6개 시군(속초·태백·평창·정선·인제·양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 명문가 가족은 소위 ‘배경이 없는 가족’이 받는 증명서 같은 느낌이라며 특별한 혜택도 없이 명문가 문패만 준다고 명예가 과연 높아지는 것이냐는 의문을 자아냈다. 그는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함께 걸어요! 강릉 바우길

5월 12일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은하’의 주최 아래 ‘인문대학 각양각색[왁자지껄]’이 진행되었다. 총 80명이 참여했고, 학교 주변 지변저수지 일대를 걷는 토크 워킹과 간담회가 준비되었다. 올해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풍경을 즐기며 선배, 동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바우’는 강릉 사투리로 바위를 뜻함과 동시에, 과거 바빌로니아 건강의 여신 ‘바우(Bau)’에서 따온 말이다. 총 17개의 트레킹 구간으로 구성되어있는 바우길은 총 238.7km의 길이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서부터 시작해 안반데기 윤유길에서 끝이 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신사임당길’이라고 불리는 11구간을 걸었다. 우리 대학 해람지에서 출발해 죽헌저수지와 오죽헌을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민정 학우(국어국문학과 25)는 “지변저수지를 걸으며 학과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참여 후기를 밝혔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산책로를 알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퀴즈 대회도 진행했다. 각 학과에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과 관련한 내용의 퀴즈를 냈고 1,2,3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 퀴즈 질문들은 우리 대학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 7개 학과에서 5개씩 출제했다. 1등은 신유나 학우(중어중문학과 24), 2등은 장규민 학우(국어국문학과 25), 3등은 강우진 학우(일본학과 25)가 각각 차지했다. 총 305만원의 예산이 투여된 이번 프로그램은 석식과 간식, 기념품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최한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인 전은지 학우(독어독문학과 19)는 “신입생들과 재학생의 참여가 많을 수 있도록 학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품, 식사 등에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했다. 또한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걸어준 인문대학 학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며 학우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인문대학 학장 최일의 교수(중어중문학과)는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학과 소속감의 증진을 통해 중도 이탈률을 감소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이번 각양각색의 목적을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 학우들은 멘토-멘티 형식으로 구성된 토크 워킹의 방식을 통해 학과 선배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동기,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지의 행사가 많아져 인문대 학우간의 끈끈한 우애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현 기자



▲ 각양각색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이다.
사진 =김도현

대한민국이 외면하는 현실 '자살'

출산율만 말하는 자살률 1위의 나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분야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소상공인, 경제, 외교, 청년 실업,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관련 정책들을 말하며 선거 유세를 펼쳤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제 얼마나 걱정, 우울감을 느꼈는지를 0~10으로 나타내는 부정 정서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3.6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부정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국민이 11.1%에 달했다.

개인의 행동이 모여 사회적 문제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27.3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된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숫자이다.

[단위 : 10만 명당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살률	전체	27.3	26.5	25.6	24.3	26.6	26.9	25.7	26.0	25.2	27.3
	남자	38.4	37.5	36.2	34.9	38.5	38.0	35.5	35.9	35.3	38.3
	여자	16.1	15.5	15.0	13.8	14.8	15.8	15.9	16.2	15.1	16.5
연령표준화 자살률	전체	23.9	22.7	21.9	20.7	22.6	22.6	21.9	22.1	21.2	22.7
	남자	34.6	32.9	31.6	30.0	32.7	31.7	29.9	30.0	29.2	31.0
	여자	14.0	13.3	13.0	12.0	13.0	14.0	14.4	14.7	13.5	14.8

주석: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자살률임

▲ 2014-2023년도 자살률 추이 사진=통계청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5위로 나타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10~39세의 인구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다. 다른 연령층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10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다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원인 6위 안에 들고, 일부 연령층에서는 10위 내에 포함된 모든 사망원인을 고려하더라도 자살로 사망하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이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아주 적게 사용하고 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562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예산에 1%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낮은 일본은 8,300억 원을 자살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한다. GDP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률을 낮추려면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운영 중이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생명의 전화(1588-9191), 정신건강 상담 전화(1577-0199)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교내에는 학생상담센터가 존재하며 전문상담사와 1:1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 갈등을 상담할 수 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살 예방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끼치지 않으므로 상담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 사진= Chat GPT

송지훈 수습기자

종이에서 디지털로, 20대를 사로잡은 'SNS 매거진'

종이 잡지의 몰락, 또 다른 가능성으로

유행을 선도하던 종이 잡지의 쇠퇴는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왔다. 페이지를 넘기며, 정보를 습득하던 종이의 시대를 지나 손가락으로 스크롤 하는 디지털의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20대 사이에서는 이미지와 짧은 글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SNS 매거진'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 잡지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잡지 발행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5,31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1.1% 감소했다. 호당 평균 발행 부수도 3,947권으로 2021년 대비 약 40% 줄었다. 이러한 종이 잡지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제작비 부담이 없는 SNS 매거진으로 이목이 쏠린 것이다.

20대를 사로잡은 SNS 매거진의 매력은?

SNS 매거진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줄어든 제작비 부담만이 아니다.

▲뛰어난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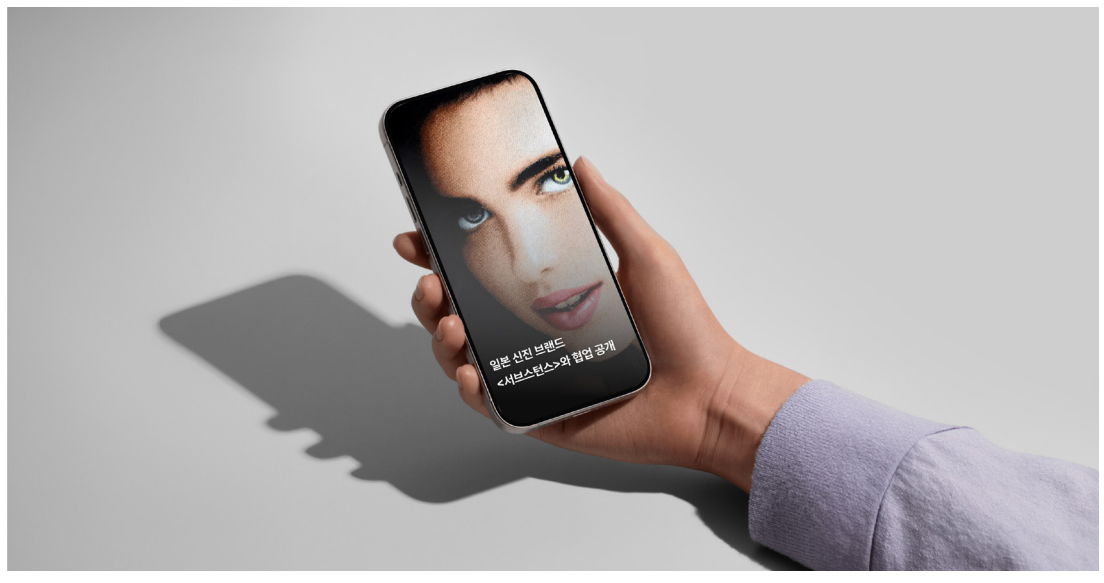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나폴레옹캣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63.6%가 18~34세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휴대전화 속 SNS에 집중하는 시대에, 이보다 좋은 접근성을 가진 매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종이 잡지를 읽으려면 서점에 방문하여 구매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SNS 매거진의 편리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골라보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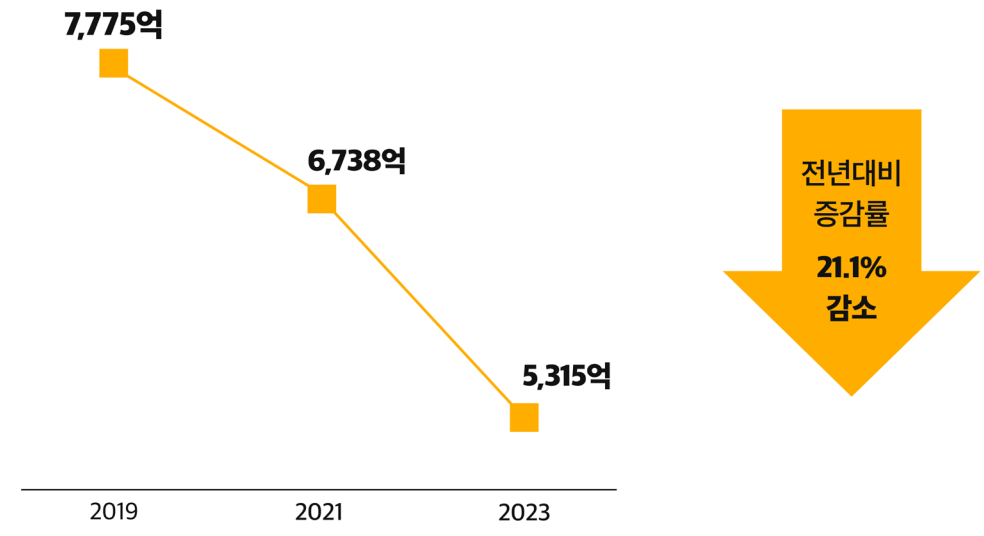
독서, 라이프스타일, 패션, 이슈 등 개인의 취향이 담긴 SNS 매거진은 감각적인 콘텐츠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한 개인의 큐레이션이 같은 취향을 가진 다수의 사람을 모으고, 콘텐츠를 통해 취향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특성상 하나의 SNS 매거진 계정을 팔로우하면 비슷한 계정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쉽게 골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손쉬운 제작 접근성

과거 전통 매체가 개인이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다면 SNS 매거진은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방식의 매체가 등장한 것이다. 본 기자가 운영하는 SNS 매거진 '알티드 웹'은 패션 콘텐츠를 발행하여 15,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았다. 또한 브랜드와 협업, 제품 제작 등 개인이 하기 힘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듯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매체 특성상 단순한 소비를 넘어 창작까지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매출액 변화



▲ 2024 잡지산업 실태조사 사진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애도 콘텐츠로, 무궁무진한 콘텐츠 세상

기존의 종이 잡지는 패션과 비즈니스, 사회 이슈와 같은 분야를 주로 다루지만, SNS 매거진의 활약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연애 관련 콘텐츠로 한 달에 약 1,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요매거진'은 10·20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SNS 매거진이다. 백요한 편집장은 "인터뷰를 주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공감과 고민의 여지를 던지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단순히 행복하기만 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과 변화, 순간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콘텐츠를 설명하였다.

또, 사람들이 연애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얘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특히 연애 콘텐츠는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을 다루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쉽게 겹쳐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잘된 이야기보다 애매한 이야기, 불확실한 경계에 있는 감정에 더 큰 반응이 온다. 어딘가 불완전한 상태일수록 '이건 내 얘기 같다'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애 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꼽았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자본

모든 SNS 매거진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데일리패션뉴스', '아이즈 매거진'등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어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기업형 웹 매거진도 있다. 특히 뉴 미디어 대표 기업인 아이즈 매거진은 작년 7월 중앙그룹 HLL 중앙과 조인트 벤처(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 구성체) '아이즈중앙'을 출범했다. 중앙그룹의 계열사인 HLL중앙은 럭셔리와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특히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허스트 매거진과 합작하여 설립한 허스트중앙을 통해 '엘르', '코스모폴리탄', '하퍼스 바자', '에스콰이어' 등 영향력 있는 잡지들을 발행하고 있다.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속도 뒤에 가려진 그림자

한계를 모르고 커지는 SNS 매거진 시장에도 취약점은 있다. 바로 저작권 경계와 오정보(misinformation) 문제다.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오정보에 취약하게 만들고, 창작물 보호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미지와 영상 위주로 구성된 콘텐츠는 저작권 경계가 흐려지기 쉽다. 스타일링 컷, 제품 이미지 등 타인의 창작물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단순 '공유'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브랜드 공식 콘텐츠를 재편집해 자사의 방식으로 내보내며 오히려 원저작물보다 더 큰 도달률을 얻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에 따라 원작자와 2차 창작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콘텐츠의 가치는 팔로워 수와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

이에 따라 SNS 매거진 시장에서도 콘텐츠 신뢰성과 윤리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빠르게 많이 퍼지는 콘텐츠'가 아닌,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중이다. 업계 일부는 자체적인 사실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자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확산 경쟁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주류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혁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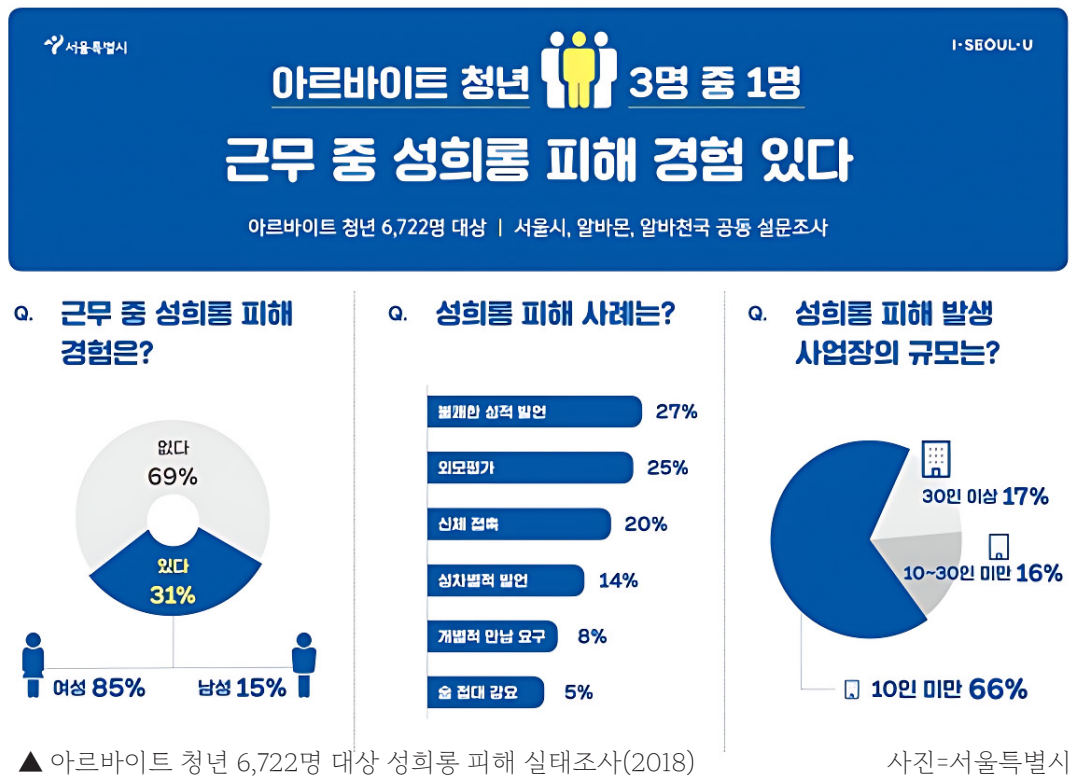
청년 아르바이트, 의무만큼 권리도 중요

신체적 접촉이나 음담패설에도 참는 알바 청년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성희롱을 경험했으나 제대로 된 구제 및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3.4%)'와 '음담패설(1.8%)'을 경험한 바 있고, 그 밖에,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강요, 신체 접촉 요구 등 위계적 분위기에서 벌어지는 간접적인 강요 또한 만연히 벌어졌다. 국내 한 카페에서는 한 남성 손님이 카페 여사장에게 외모 평가와 성행위 암시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사장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퇴장을 요구했으며, 해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위와 같은 현실이 가져오는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단지 한 사람의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있다. 본 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무 실태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 대상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2018) 사진=서울특별시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과 의미

소규모 사업장에서 접수된 피해 사건 접수 건수는 2,607건으로, 전체 민간사업자 신고의 56%에 해당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피해 인지조차 어렵고, 직원 또는 대표가 가해자 본인이거나 친밀할 경우, 인지 이후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하여, 내부 조치 시도 즉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경우가 657건(25.2%)이고, 경징계 혹은 주의 등 사내 조치가 각각 534건(20.5%), 주의 및 경고가 457건(17.5%)이며, 중징계 및 형사 조치로 연결된 경우는 각각 298건(11.4%)과 정직 또는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실제 고소 및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63건(2.4%)이다. 이처럼 30인 이하 사업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공식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인지부터 수사까지 단계별로 제도적 공백과 심리적·구조적 장벽이 존재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보다는 조직 방어적 관성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지난 몇 년간 미투 운동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발·고소 효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부터,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안전하게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 신고 창구란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간의 성희롱,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하여 누구든 신고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해고·감봉·따돌림 등 불이익을 가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문제 해결의 단초는 "피해자의 용기"

미국 커피 업계는 성희롱 문제가 만연함을 인식한 바리스타 몰리 소더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coffeetoo 운동이 있었다. 현재 이 운동은 업계 내 성희롱과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 정보 공유, 전문가 강연 같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coffeetoo는 커피 업계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ffeetoo 운동의 긍정적인 점은 유명 커피 브랜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커피 업계 반응이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개점한 적이 있어 낯설지 않은 이름인 포 배럴 카페에서 창업주와 소유주 3인 중 한 명인 '제레 투커'가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곳의 경영진 중 하나인 '조디 제렌'과 '탈 무어'가 피해자들을 침묵시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건은 이러한 사실을 소셜미디어와 언론사를 통해 알리며 포 배럴 카페에 대한 보이콧을 전개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어 주요 카페 및 도매처가 포 배럴 카페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결국 조디 제렌은 CEO 공식 입장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일축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coffeetoo 운동은 성희롱·폭행 사건을 단순히 특정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회성 갈등에서 끝나지 않는 대신, 커피 업계 내부에 만연한 위계와 폐쇄성, 소규모 조직 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던 권력 남용과 침묵의 문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이 운동은 개별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에서 출발했으나, 업계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며, 모든 커피 업계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coffeetoo는 단순 고발이 아닌, 업계 문화 전반을 바꾸려는 집단적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김동주 기자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흐르는 MZ세대의 인식

MZ세대와의 세대 격차 수면 위로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눈치가 없어"

최근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MZ세대에 대해 지적하는 말들이다. MZ세대가 본격적으로 직장 내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세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갈등 양상을 코미디 프로그램 'SNL'이나 대형 유튜브 채널인 '숏박스'와 같은 매체에서 풍자 콘텐츠로 다루면서 MZ세대에 대한 인식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MZ세대의 인식,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새로운 소비집단 MZ세대

MZ세대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세대인 '제너레이션 세대'를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본격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소비집단으로 등장한 MZ세대를 언론에서 조명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접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과 개인의 취향과 가치의 존중, 그리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이 있다.

2만 명 넘는 임직원에게 직통 이메일, 성과급 사태

세간에서 MZ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2021년 성과급 사태였다. 2020년은 코로나가 한창이었으나, 몇몇 기업에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은 당시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엄청난 영업실적을 올렸고,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 84% 증가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2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옆집(삼성)은 성과급이 연봉의 47%인데 반해, 우리는 왜 20%밖에 안 되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SK하이닉스 입사 4년 차인 한 MZ세대 직원은 사내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2만 8천 명의 임직원에게 '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사측은 꼬리를 내리고 성과급 지급 사안을 재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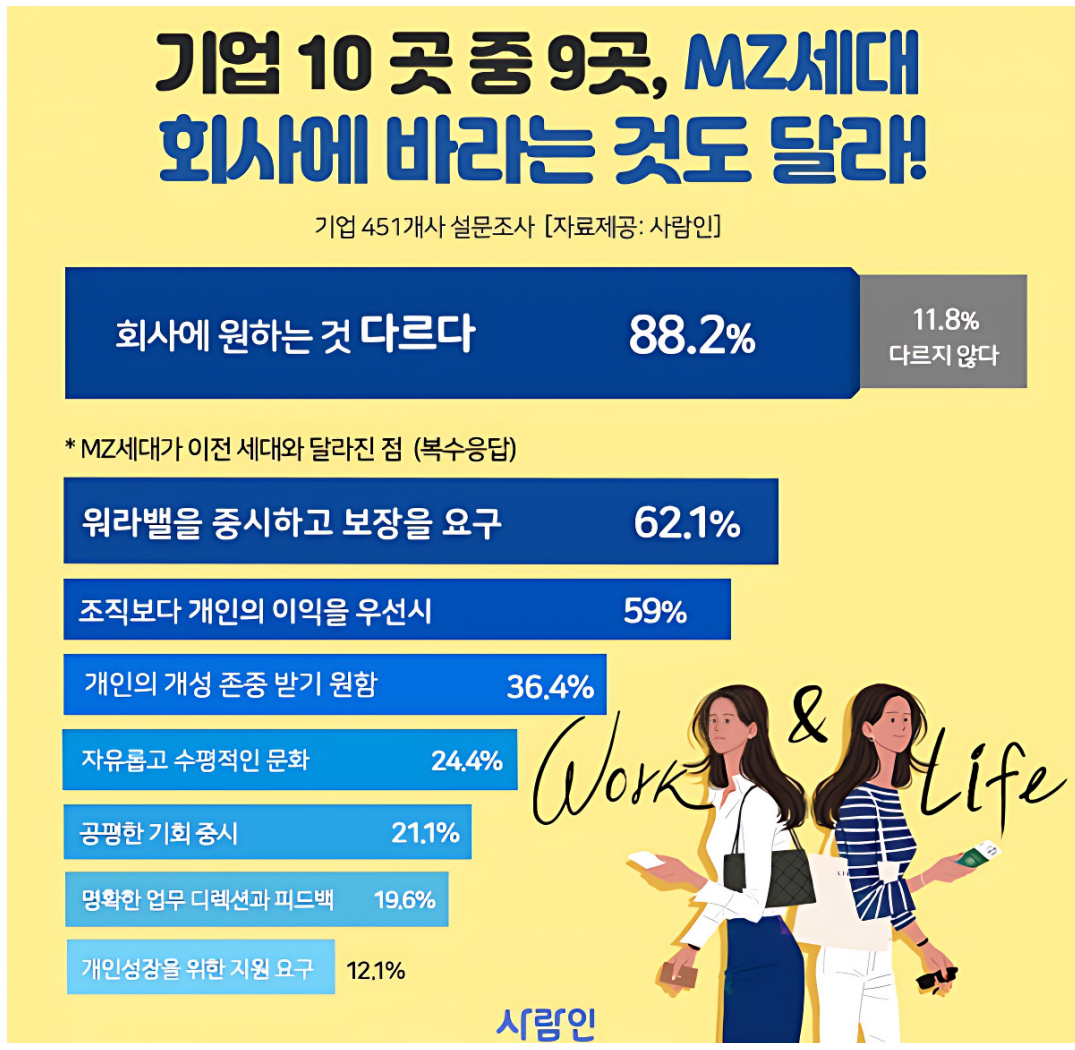
성과급 사태는 삼성과 LG까지 옮겨갔다. 각자 본인들의 사업부와 타 사업부를 비교해봤을 때, 영업성과에 비해 성과급이 저조하다는 점을 호소했고, 이러한 호소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라인드 등)를 통해 또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며 경제계 전반으로 퍼졌다.

과거와는 바뀐 시대, '누가 맞는가'가 아닌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처럼 MZ세대는 기성세대들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기성세대에게 성과급이란,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 포상의 개념이라면, 지금의 MZ세대들에게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대가라고 인식한다. 또 과거에 이직은 회사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였지만, 지금은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보다 이질적인 MZ세대가 등장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누가 맞는가'가 아닌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이다. 이는 어느 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준기 기자



▲ MZ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회사에 원하는 것이 다른지 여부조사(2018) 사진=사람인

20년째 이어진 전통과 현대의 만남, 단오제

천년의 기다림, 세계인의 어울림! 스무살, 단오제

지난 27일, 강릉 지역의 대표 축제인 단오제가 열렸다. 이번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20주년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이 이어졌다.

강릉단오제는 제의와 연희로 나뉘어져 진행한다. 제의는 △신주빚기△대관령산신제△대관령국사성황제△구산서낭제△학산서낭제△봉안제△영신제△단오굿△송신제로, 연희는 △관노가면극△학산오독떼기△강릉농악△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단오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그네뛰기, 씨름, 투호놀이, 줄다리기, 윷놀이와 같은 놀거리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단오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 참여 분야도 활성화되어 강릉시민이라면 '단오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神)에게 바치는 술인 '신주(神酒)' 빚기 또한 강릉 시민들의 헌미를 통해 모은 '신주미'로 만들어져 축제 기간동안 강릉 단오제 체험촌의 신주와 수리취떡 맛보기 행사장에서 무료로 맛볼 수 있다. 강릉 시민이 참여한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놀이'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볼거리를 선사했다.

볼거리 가득! 단오제를 빛낸 우리 학우들의 공연

28일 오후, 단오제 내 마련된 수리마당에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동아리들의 공연과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동아리 연합 공연이 진행되었다. 우리 학교의 문화 분과 동아리인 게토스트릿, 트랩퀸, G#, 이슈 등이 같은 분야의 가톨릭관동대학교 동아리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했다. 랩, 댄스,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되어 남녀노소 즐기는 단오제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다. 공연 관람객 중 어머니 한 분께 공연 소감을 여쭙자, "이번 기회에 젊은 사람들 음악 취향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덕분에 손녀와 음악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통대길 길놀이, 시민과 세계가 함께한 축제의 거리

29일 저녁, 강릉단오제의 대표 행사인 '신통대길 길놀이'가 시민 4,000여 명, 37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신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 시내 중심가에서 남대천 단오제단까지 이어져,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단오 열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이날 행렬은 강릉 의료원을 출발해 대도호부 관아, 옥천 오거리, 성내동 광장 등 도심 1.5km 구간을 따라 진행됐다. 오방색 천으로 장식된 신목(神木)을 선두로, 각 마을 사람들과 기관, 단체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복장과 퍼포먼스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 4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60여 명이 '강릉대학 연합 외국인학생단'으로 참여해,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국제무형문화유산도시총회(ICN) 대표단과 외국인 주민,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어울려 행렬을 이끌며, 강릉단오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시민들은 행렬을 따라 함께 걷거나 사진을 찍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신목이 마지막 목적지인 단오제단에 안치되면서, 지역 수호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본격적인 단오제 행사가 시작됐다. 행렬과 축제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는 단순한 퍼레이드를 넘어, 신과 인간,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강릉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임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강릉단오제가 지역 공동체와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는 축제로 계속 발전하길 기대한다.

반소정 기자 · 윤재인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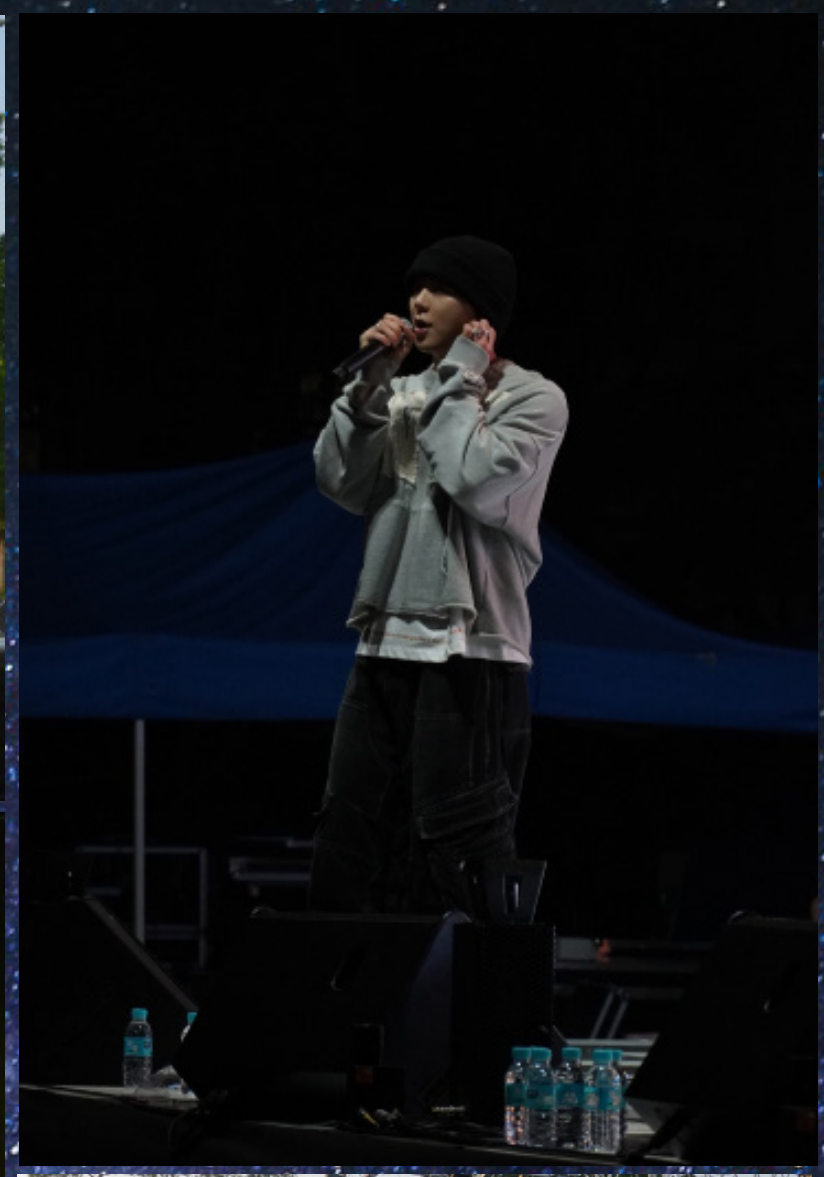
▲ 왼쪽 상단부터 단오제의 시작을 준비하는 봉안제, 우리 대학 DMA의 공연, 신통대길 길놀이.

사진(봉안제)=단오제 공식 홈페이지
사진(DMA공연, 신통대길 길놀이)=반소정

유성처럼 찬란한,
너와 나의 **별난 이야기**
그 무엇보다 빛났던 **대동제**

지난 5.20-5.2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U:light 해람 대동제가 펼쳐졌다. 1일 차, 2일 차 공연은 우리 대학 문화분과 동아리와 외부 지역 교류 행사로, 3일차에는 비령가요제가 진행되었다. 초청 공연은 경서예지&전건호, 빌리, 세이마이네임, 래원, 김수영, 벤 등이 장식했다.













▲ 사진=김규완

이준기의 시선

‘최후의 수단’이 일상처럼 탄핵에 휩싸인 대한민국



▲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막을 내렸다. 국민이 승리함을 만끽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6월 3일 치러졌다. 세 명의 후보가 다투는 1강 1중 1약의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추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포트라이트 밖의 더불어민주당에 시선이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한민국의 탄핵의 역사는 민주당과 함께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굵직한 탄핵소추는 민주당의 지분이 굉장히 컸었다. 또한 ‘증오의 대선’이라고 불리는 20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나서는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탄핵 공세를 이어 나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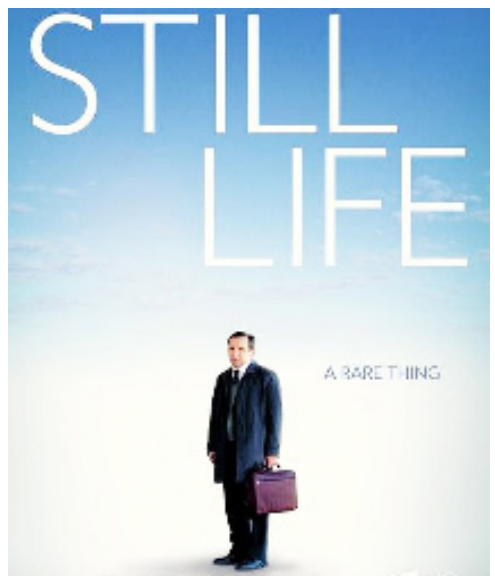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야당 주도 탄핵만 31번이며, 대부분 본인들과 대립하는 정부 인사와 검찰을 상대로 진행한 것이다. 이조차도 정치적인 역풍 때문에 상당수 철회, 폐기하였고, 기각된 건도 대다수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에도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피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이지만,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은 탄핵만을 외친, 민주당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예전에는 의원들 입에서 탄핵에 ‘탄’ 자만 나와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탄핵이란 말에 너무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탄핵도 결국은 국내 정국의 향배을 결정하는 장치 중 하나다. 그 파급력은 비상계엄 못지않게, 최후의 수단이자 보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할 바와 같이 최근 탄핵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이 많이 사라졌다. 수틀리거나 건수 하나 잡으면 광화문으로 나가는 정치는 ‘불복의 정치’로, 결코 올바르지 않다. 본인들은 행정부의 혼란을 줄 의도가 없었고,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한들, 정치는 곧 ‘사실이 아닌 인식의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이재명 정부도 들어섰고, 22대 국회도 시기상으로 임기 초나 다름없는 때이다. 집권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최근 몇 년과 같은 탄핵 공방이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에게 남긴 탄핵 남발의 이미지는 씻어낼 필요도 있다. 탄핵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맞춰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탄핵에 휩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본인들의 슬로건처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영화 한 편

당신의 이야기의 마침표, 잊힌다는 것. Still Life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평소에 “누가 나의 장례식에 와줄까?” 또는 “나의 죽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끝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걱정하며 평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결말을 맺고 싶은지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죽는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하며 살아간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과 알고 지내며, 어울리기 마련이다. 몇십만 명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몇만 명과 시간을 보내고, 몇천 명과 우정을 약속하며, 몇백 명과 비밀을 이야기하고, 몇십 명과 연락할 것이다. 그들 중 ‘당신의 마지막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당신의 마지막에 와줄 사람,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몇 명인가?

“그냥 제 일인걸요.”

이 영화는 삶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식을 보여주지 않고,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마지막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고인을 위해, 가족과 지인을 수소문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공무원, 존 메이의 이야기이다. 존 메이는 아무도 듣지 않을 추도문을 작성하고, 홀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묘지를 만드는 업무를 한다. 누군지도 모를, 살아생전 만나본 적 없는 타인의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진실로 슬퍼해준다.

“우리는 혼자 죽더라도, 완전히 잊히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 대상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일 때, 그 가치가 더욱 배가될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 ‘존 메이’는 살아서 만난 적도 없는 고인을 위해 작은 행동도 조심해서 한다. 그리고 기억해 준다. 그렇게 고인의 마지막 인연이 되어주는 것이다. 주인공은 공무원으로서 ‘일’로 다가가지 않고, ‘인연’으로 다가가며 행동한다.

“하다못해 장례식이라도 와주실 분들 없나요?”

일상 속에서 보면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나한테 별 도움 안 될 텐데’, ‘내가 저 사람까지 신경써야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당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은 품위 있는 작별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삶이 외롭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한 치 앞도 나아가기 힘든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한 줌의 위로를 건네줄 이 영화를 추천한다.

송지훈 수습기자

한 컷 속으로



지난 3일 기나긴 6개월간의 내란이 종식되고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다. 28년만에 투표율 최고치를 갱신한 이번 대선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영하의 시린 겨울,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시위 속 휴머니즘을 기억하며, 작지만 무거운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반소정 기자

월간한줄

3
2일
고대했던 자유전공학부, 신설 후 첫 운용

14일
한국을 덮친 火魔(화마), 전국 동시다발 산불

4
4일
보수정권, 또 한 번 무너지다 윤석열 탄핵

21일
굿바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5
28일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통합안 극적 타결

6
29일
강릉원주대학교의 자랑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천윤필 전하늘 천수지

3일
1강 1중 1약 구도 속 대선